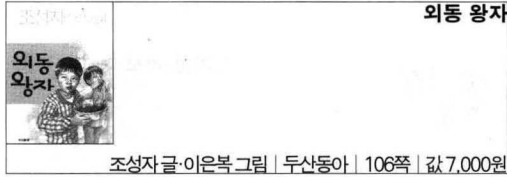


< 왕자와 거지가 친구가 됐어요 >



조성자 글·이은복 그림 | 두산동아 | 106쪽 | 값 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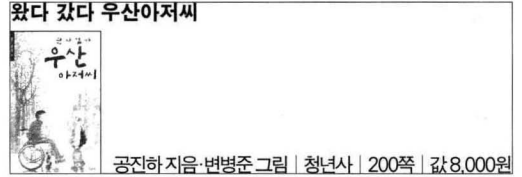


한 자녀 가정이 늘어납니다. 아이가 한 명이 다보니 부모님들은 아이가 원하는 것은 대부분 다 사주려고 하고 투정부리는 것도 “오냐, 오냐” 다 받아주지요. 형제가 많았을 때는 형이 입던 옷을 동생이 물려 입고, 누나가 쓰던 학용품과 장난감을 동생이 물려 쓰는 일이 흔했지만 형제자매 없이 혼자인 아이들은 방도 혼자, 학용품도 혼자 씁니다. 비슷한 또래의 형제자매와 때로는 부대끼고 다투며 때로는 정을 나누며 지내야 하는데 그럴 형제가 없으니 동기간에 정을 나눌 일도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정규 역시 ‘외동 왕자’라 불리는 외동아들입니다. 엄마가 정규를 과잉보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규는 자신을 ‘왕자님’이라 부르는 엄마 밑에서 곱게 자라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진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정규가 머리도 안 감고 다니는 건모를 만나면서 우정을 넘어 형제애를 느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자기 집에 들어온 동물도 함부로 내쫓지 않았단다. 하물며 사람을 어떻게 쫓아 낼 수 있겠니?”라고 자신을 다그치는 엄마의 말에 “엄마, 난, 건모는 싫어요”라고 대답하던 정규는 할머니가 쓰러져 엄마가 집을 비우자 외로움을 느끼며 건모를 찾게 되지요. 곱게만 자란 왕자 정규와 머리에 이를 달고 다니는 거지 건모가 친해진 이야기. 형제자매

없는 가정의 자녀가 가질 수 있는 고민들을 현실감 있게 그려낸 이야기입니다. 형제자매가 없다고 해서 외로워하지 마세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가족이 될 수 있거든요.



< 나와 다른 친구들이라고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



공진하지음·변병준 그림 | 창년사 | 200쪽 | 값 8,000원

서울시 마포구 중동에는 한국우진학교라는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이곳 아이들이 탄 노란 스쿨버스가 설 때 동네 아이들은 엄마에게 “재들은 왜 저래?”라고 물어보길 잘 하지요. 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지체부자유아와 중복장애아로 몸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일반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친구들이죠. 그래도 일반학교 친구들은 이 아이들이 한없이 낯섭니다. 《왔다 갔다 우산아저씨》를 쓴 공진하 선생님도 특수학교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것부터 가르쳐야 할지부터 막막했다고 하는데 아이들이야 오죽할까요. 선생님도 가끔 가르치는 학생들을 데리고 거리에 나갈 때 “아줌마, 애는 왜 이래요?”, “말 못해요?” 등의 질문을 자주 받았답니다. 그렇지만 이 책에 담은 아홉 편의 이야기를 펼쳐보면 우리와 똑같은 애지만 꿈과 희망, 사랑을 가진 친구들 속을 조금씩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을 겁니다.

4월, 누구나 예쁘게 핀 꽃을 보러 들뜬에 나가고 싶지요. 그렇지만 두 살 때 뇌막염을 앓은 현우는 혼자서 걸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서 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현우가 빨간 자전거를 타고 아파트 단지까지 들어가게 된 이야기를 담은 《빨간 자전거를 탄 현우》를 읽으면 혼자서는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말을 못해 답답해하는 현우의 아픔이 보입니다. 그러나 “어! 어!” 하면서도 어떻게든 자전거를 타보려고 안달하는 현우의 꿈은 평범한 아이들의 소박한 소망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산책하기 좋은 계절 4월. 우진학교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나와 조금은 다른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익숙치는 않겠지만 공진하 선생님 말처럼 이 친구들도 나와 친한 ‘우리 반 누구’와 다름없는 그런 친구들이니 편견 없이 친구들을 맞아주세요. 우리가 다니는 학교, 사회가 만들어 놓은 벽 때문에 외로워진 친구들의 일상을 들여다볼 기회를 주는 책입니다.



어리석은 판사

마고제마크그림·하브제마크글 | 장미란 옮김 |



시공주니어 | 48쪽 | 값 8,000원

손으로 턱을 받치고 눈을 감은 남자가 보입니다. 다리는 한쪽으로 꼬고 앉았고 한 손은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어떤 말도 듣기 싫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 고집스러워 보이는 매부리코 아저씨는 판사입니다. 《어리석은 판사》의 표지에 있는 판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똑똑하면서도 자기주장이 강해 보이는 이 아저씨가 왜 어리석다는 것일까요? 책을 펼치면서 그 이유를 찾아봅시다.

판사는 거만합니다. 아무리 죄수라지만 판사 앞에 끌려온 죄수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으려고도 하지 않지요. 첫 번째 죄수는 본 대로 말하는 게 죄인 줄 몰랐다면서 꼬리털이 북슬북슬한 괴물이 험상궂은 눈을 부라리며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거만한 판사는 말도 안 된다며 죄수를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하지요. 다음 죄수들도 똑같은 처지가 됩니다. 첫 번째 죄수의 증언에 살을 붙였을 뿐 모두들 무시무시한 괴물이 따라오고 있다고 증언하거든요. 그렇지만 판사는 여전히 말을 믿지 않고 이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는 순간 판사 뒤에 그 무시무시한 괴물이 와 있습니다.

이 그림책은 죄수들의 반복적인 증언을 듣는 재미도 주지만 곱슬머리에 동그란 안경을 쓰고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판사의 모습과 그가 결국 괴물을 만나게 된다는 결말을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죄수라 하여 그들의 말을 믿지 않는 판사의 태도가 타인을 믿지 않는 불신사회를 상징하지요. 판사처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가릴 줄도 알아야 하지만 한편으론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 태도도 가져야 합니다. 귀엽고 예쁜 캐릭터 일색인 그림책과 달리 풍자적이고 시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별한 책입니다.



알미운 사람들에 관한 책

토니 모리슨·슬레이드 모리슨 글 | 파스칼 르메르트 그림



노경실 옮김 | 주니어김영사 | 52쪽 | 값 8,900원

나는 한다고 했는데 내 노력만큼 결과물이 좋지 않거나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격려는 못해줄망정 버럭 화를 내거나 나를 알보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의혹이 저하됐을 때 잘하려고 안달하는 내 마음도 모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요하는 사람들이 제일 알밉습니다. 어린이들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쓴다고 썼는데 공책줄에 글씨를 맞춰 쓰지 않았다고 혼내는 선생님, “엄마 말 제대로 듣고 있는 거니?”라며 소리치는 엄마,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누나까지. 선생님도 잘맞춰 쓰지 않으면서, 엄마도 내 말을 안들을 때가 있으면서 어른들은 무조건 훈계만 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토끼는 자신들도 늘 실수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무조건 훈육하려 드는 어른들을 “알밉다”고 표현합니다. 동심이 풀어놓는 불평불만들을 감쪽한 에피소드들로 소개하는 책입니다. 아이들은 얼굴을 잔뜩 찡그리며 화 내던 알미운 어른들이 갑자기 웃으며 나타날 때 겁이 난다고 하니 엄마아빠는 꼭 참고해 주세요. 또 토끼가 지적하고 있는 행동을 저지른 어른들이 있다면 반성하시구요. 알미운 어른, 알미운 어린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읽어보면 좋을 책입니다. **추천**



김청연 기자

